

###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

사도 요한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의 거대한 폭력에 대하여 인간의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확고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어떠한 세상의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으로 대응합니다.

#### 북한 관련 정세 이야기

최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탄두를 고도화된 핵미사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에 이뤄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핵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정상은 이탈리아 폴리아주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하여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이미 보유한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를 더 정교하게 멀리 날려 보낼 핵미사일 기술의 유입을 우려한 것입니다.

스웨덴에 소재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6일에 공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 2024)은 북한이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가운데,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 외에도 총 90기의 핵탄두를 조립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의 추정치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연구소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부연구원인 마트 코르다(Matt Korda)는 “북한이 분쟁 초기에 이러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하여 총 9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러시아가 4,3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어서 미국이 3,708기, 중국 500기, 프랑스 290기, 영국 225기, 인도 172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북한이 5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바로 머리 위에 북한의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두게 되었습니다. 실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 강화 혹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본질을 봐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확대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론적 분노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믿음은 북한이 남한에 가할 수 있는 폭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황폐해 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대신, 온갖 우상과 핵과 미사일로 인간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 앞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 하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점점 어두워 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옷을 입고 서로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기도제목

1. 20년이 넘는 세월을 1010차에 이르기까지 교단, 교파, 단체를 뛰어넘어 기도해온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국과 해외에 더 많은 쥬빌리 지역모임이 발족되게 하옵소서.

2.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주니어쥬빌리 청소년 통일캠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캠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한국교회 안에서 북녘 동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탈바꿈하고,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 말씀 나눔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1-16절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의 환상을 봅니다. 본문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충신과 진실’이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과 진실 가운데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킬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 재판관이자 전사로서 적대 세력을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모습을 상징합니다. 13절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대 세력과 전쟁하는 중에 그분의 옷에 적의 피가 뿌려졌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대의 피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써 사탄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셨음을 가리킵니다. ‘피 뿌린 옷’은 종말론적 적대 세력의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적대 세력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믿습니다. 또한 미래에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악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북한의 핵과 폭력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기력한 도피가 아닌 가장 강력한 응답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거대한 악의 세력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폭력에 대항하여 비폭력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철저히 비폭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신학적 관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 탄 자의 심판이 없다면 평화와 진리와 공의의 세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sup>1)</sup> 하나님만이 빛으로부터 북한의 폭력과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470.

거짓 선동의 어둠을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으로부터 악을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God’s eschatological anger)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sup>2)</sup>

세상 속에서 악인은 악한 일을 통하여 스스로 악을 증식합니다. 그리고 더 큰 악을 행하므로 악에 대하여 더 강력한 면역력을 키워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을 향한 처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악인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끌어당기심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순진하고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기만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악인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을 열어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폭력에 대하여 비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sup>3)</sup>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먼저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십자가로 구속받기를 거부하는 혼돈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 후(after God’s patience with chaotic powers), 하나님은 피조물의 본래적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폭력적인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십니다(God inflicts violence against the stubbornly violent). 심판의 목적(The purpose of the judgment)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평화롭게 끌어안고 영원한 춤(an eternal dance of differences that give themselves to each other in peaceful embrace)<sup>4)</sup>을 추는 것, 곧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화목한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분노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핵무기라는 폭력을 쌓아가는 북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

2) 위의 책, 473.

3) 위의 책, 476.

4) 위의 책, 477.